




지난해 열렸던 '굿모닝 양림' 공연.



예술 안에서...우리 모두 하나 양림이 들려주는 가을 소나타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
13~15일 금남로·광주천 둔치

굿모닝 양림
14~16일 양림동·사직공원 일원

깊어가는 가을, 사색과 여유를 제공하는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제7회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13~15일)과 '굿모닝 양림'(14~16일)이다.

광주예총이 주관하는 아트페스티벌은 광주천 둔치(광주교~중앙교 사이)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Art One'으로 '예술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체험, 공연, DJ파티, 영화 상영 등 10개 소속 단체가 지난 1년간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13일 오후 5시30분 금남로 일원에서 31사단 군악대, 풍물패 등이 퍼레이드를 펼쳐 축제 시작을 알린다.

연극협회는 오후 7시40분 '심정없는 심정전'을 무대에 올리고 영화협회는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을 공연한다. 변사가 출연해 관객과 대화를 하며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눈에 띄는 공연은 폐막식 무대(15일 오후 8시30분)에 오는 '역사 속으로' 퍼포먼스다. 안중근 의사 일대기를 다룬 내용으로, 약 40명이 출연해 마살아 등 난버벌 퍼포먼스를 펼친다.

광주천에는 고근호 작가가 제작한 높이 6m 크기 캐릭터 풍선 조형물 7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내부에 조명을 설치해 야간 볼거리를 풍성하게 한다.

체험프로그램 '아트 원 예술여행'에서는 각 단체가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미니어처 건축물 제작, 인형극

같이하기, 악기체험을 비롯해 연예협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상 오디션을 진행한다. 10개 장르를 모두 체험하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밤 9시(동해날 10시)부터는 심야영화를 상영하고 박태진DJ가 참여해 흥겨운 DJ파티를 연다. 한편에는 '시와 음악이 흐르는 돛자리 주막'이 열려 누구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문의 062-528-9207.

가을 인문학축제 '제6회 굿모닝 양림'은 '양림에서 들려주는 가을 소나타'를 주제로 양림동·사직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굿모닝 양림'의 가장 큰 특징은 술·음식을 판매하지 않고 인사말을 시낭송으로 대신 하는 점이다.

올해 특별무대는 시낭송대회와 인문학 강좌로 구성된다. 15일 오전 10시 시낭송 대회에는 시민 누구나 선착순 40명 참여할 수 있다. 오소후시인상 등 4개상이 준비됐다. 16일 오후 7시 인문학강좌에는 소설 '태백산맥' 저자 조정래 작가가 참여한다. 조 작가는 포크 음악과 작곡에 예술과 삶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515갤러리에서는 '양림동 화가들'을 주제로 28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한다. 배동신, 황영성, 우재길, 김영만, 이강하, 한희원, 최석현, 이매리, 정운화 등 양림동 출신 작가 13명 작품들이 선보인다. 양림미술관 1층에서는 30일까지 '수채화가 배동신 특별전'을, 지하에서는 '서양화가 이강하 이야기'전을 연다.

한희원미술관에서는 개관 1주년과 '2016 광주비엔날레' 기념 '골목길에서 만난 양림정신'전이 31일까지 열린다. 한희원 작가가 1년간 양림동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캔버스에 옮긴 신작 20여점을 선보인다.

그밖에 최승호가족에서는 최인준 설치미술작가의 '100년 고택의 예술가'전을 감상할 수 있고 곳곳에서 '리얼전 작가의 양림 Blue Sky'(다이닝다오), '영상으로 본 양림'(사직공원), '양림 100년 사진전'(카페 '이야기배달부 동계비')도 열린다.

다채로운 공연도 마련된다. 14일 오후 7시 사직공원 옛 수영장에서 '양림 가을 숲속음악회'가 진행된다. 가수 안치환과 장은아가 무대에 오르고 양림동 역사를 배경으로 제작한 독립영화 '양림동' 시사회도 열린다. 15일 오후 7시에는 가수 노사연, 이은하, 백영규, '이치현과 벗님들'이 출연해 가을밤을 낭만으로 적는다.

평간마을에서는 버스킹 등으로 꾸며진 '날아라 펄크'(15일 오후 4시), '추억의 DJ 박스'(16일 오후 2시)를 즐길 수 있다. 오웬기념각에서는 15일 오후 6시 연극, 성악, 밴드, 무용이 어우러진 '양림 어메이징 시어터'가 펼쳐진다.

그밖에 시비(詩碑) 4개 이상 찍어오면 시집을 주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시비', 다형다방 앞에서 시낭송을 하면 선물을 주는 '나도 양림 시 낭송가' 등 참여프로그램도 준비된다. 문의 062-607-231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겨울이 왔잖아...북쪽에서 날아오니까...기러기는 차가운 거지

안도현 시인 동시집

'기러기는 차갑다' 펴내

시와 동시, 산문과 동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독자와 소통을 이어왔던 안도현 시인이 동시집 '기러기는 차갑다'(문학동네)를 펴냈다.

이번 작품집은 지난 2010년 음식을 소재로 한 말놀이 동시 '남남'을 펴낸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동시집으로, 그동안 모은 46편의 아름다운 노래가 오롯이 담겨 있다.

모두 5부로 구성된 동시집에는 자연의 삶 속에서 발견한 경이로운 순간을 포착한 시,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 아



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얻은 시, 가족이나 친구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음악에 귀 기울인 시 등 다양한 시들이 풍성하게 수록돼 있다.

무엇보다 이번 작품집은 동시 특유의 따스한 서정과 밝은 느낌, 재미있는 서가가 교차하고 있어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읽기에 제격이다. 각각의 시에는 유쾌한 화가의 소박하면서도 감각적인 삽화가 수록돼 있어 보는 즐거움도 쏠쏠하다.

"겨울이 왔잖아/기러기는 겨울에 날아오잖아/ 멀리, 멀리, 멀리/ 북쪽에서 날아오니까/ 기러기는 차가운 거지/ 텅, 텅, 텅/ 빈 공중을 날아오나라/ 기러기는 차가운 거지" ('기러기는 차갑다' 중에서)

표제시 '기러기는 차갑다'는 먼 북쪽에서 날아오는 기러기를 바라보는 화자의 심상이 잘 드러나 있다. 자연을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의 이면이 정감어린 시어로 형상화된 것이다. 유감히 시인은 "외롭고 힘든 노정을 어떤 복잡한 개념의 외피를 통하지 않고 감각(마음)의 절실한 느낌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평한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을의 낭만 '팝스 콘서트'

광주신포니에타 연주회 ... 15일 광산문화회관

광주신포니에타(단장 이창훈)가 15일 오후 5시 광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3회 정기연주회 '가을의 낭만! 팝스콘서트'를 연다. 이번 공연은 최선용 리니아피노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이 지휘를 맡는다. 광주신포니에타를 비롯한 뮤지컬배우 김려원과 팝페라 테너 주니최, 오보에 김용환 목포시립교향악단 상임수석, 푸른솔 합창단이 출연한다.

첫 무대에는 광주신포니에타가 올라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 어네스트 골드의 'The Exodus Song'를 들려준다. 이어 김용환씨가 영화 '미션' 주제곡 '가브리엘 숲'을 오보에로 연주하고 푸른솔 합창단은 후안 카를로스 갈데론의 '그대 있는 곳까지'를 선사한다.

김려원씨는 드라마 '명성황후' OST '나 가거든', 영화 '겨



최선용 김려원 주니최

울왕국의 'Let it go' 등을, 주니최씨는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내 말 전해주소'를 부른다. 또 두사람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함께 부를 예정이다. 공연은 뮤지컬 '오페라 유령' OST 'The Phantom of Opera'로 마무리한다.

티켓 가격은 광산문화회관이 진행하는 '천원의 행복' 이벤트로 1000원이다. 14일까지 선착순 접수 받는다. 문의 062-960-89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첩첩영화주간

13일 문화전당 하늘마당 야외 상영회

10월과 11월 광주에서는 작지만 일한 영화제들이 잇따라 열린다. 14일 시작해 31일까지 진행되는 광주극장 81주년 기념 영화제를 비롯해 스페셜 영화제와 광주독립영화제, 광주여성영화제도 대기중이다. 이들 영화제를 준비하는 이들이 '광주첩첩영화주간' 조직위원회를 구성, 함께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작은 행사를 준비했다.

첫번째 행사는 13일 오후 6시~9시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리는 특별한 영화 상영이다. 상영작은 지역의 예술영화전용관으로 많은 마니아층을 거느린 광주극장의 맛을 세심하게 들여다본 다큐멘터리 ▲광주극장(윤수안·오윤주 감독·20분)과 극영화 ▲전역날(유명상 감독) ▲다시(허지은 감독) ▲안전불감증(프레드 C. 뉴마이어 감독·무성영화) 등 모두 4편이다.

영화배우 해럴드 로이드 대표작 '안전불감증'은 백화점 점원인 그가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고층빌딩 외벽 시계바늘에 직접 매달리고, 빌딩을 기어오르는 명장면으로 영화사에서 유명한 작품이다. 뜻지리는 주최측에서 준비한다. 무료 관람. 그밖에 15일에는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광주 영화인의 밤'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제36기 정기강좌'

내달 6일까지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

깊어가는 가을 삶의 다양한 이면과 문화를 고찰해보는 인문학 강좌가 열린다. 실천 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은 내달 6일까지 4주에 걸쳐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제36기 정기강좌'를 개최한다.

정규강좌(오후 7시30분)는 문학, 철학, 인문학, 음악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인문학 깊이 더하기 시간으로 명혜영 교수가 참가자와 '감각하는 소녀, 외계와 내부의 경계-풍장(風癡)의 교실'을 주제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화요일은 인문학 체험하기 시간으로 안정선 두루예술심리상담센터장이 '심리학으로 해석하는 단계별 예술심리치료'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수요일에는 '몸의 철학, 매트로 퓌터-지각의 현상학'을 주제로 인문학 이론스터디가 열린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진 소설가와 안철 클래식 음악해설가가 각각 '동양사상'으로 사유하기1-신영복의 '강의'와 'The-바흐 시리즈'를 주제로 토크를 한다.

토요일(오후 2시)과 일요일(오전 9시)에 진행되는 SEMI강좌는 '명화여 다시 한 번-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초대전'과 '인문여행-단풍놀이 in 남도' 등이 진행된다. 문의 010-4624-1201.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 날까지!

나는 몸신이 이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

이용식 엄영란 조민희 변우민 MC/정은아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